데드큐트: 취향 장례식

마이멜로디, 리틀트윈스타, 쿠로미, 나일 퍼치, 캔디스트리퍼, 밀크 등등.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캐릭터와 패션 브랜드이지만 흔히 어린 여자아이나 좋아할 거 같은 유치한 취향이라고 여겨지곤 한다. 여태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다녔지만,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나의 취향을 언제까지 고집할 수 있을까 종종 생각해보곤 한다. 취향이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에게 있어서 취향이 변하는 건 한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.

데드큐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취향이 자연스럽게 변하건 사회적 체면을 위해 억지로 바꾸건 간에 나의 오래된 취향을 청산할 날이 온다면, 새로 태어나는 내가 옛 취향의 나에게 간소하게나마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키트이다.